

<수상한 화장실. 박현숙 글>



전교 회장 선거를 앞두고 “전교 회장이 되는 사람은 큰일 난다. 이 말을 소문내는 사람도 큰일을 피하지 못한다.”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. 그러다 화장실 귀신의 저주가 시작되었다는 태풍급 소문까지!

<예스24 책소개>

1. 읽기 전(책 내용 예상하기)

‘수상한 화장실’은 제목 그대로 화장실에서부터 퍼져 나간 소문을 소재로 삼은 이야기입니다. 제목도 그렇고 표지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표정도 그렇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책장을 빨리 넘기고 싶어지게 만듭니다. 책 제목과 표지를 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예상해봅시다.

2. 읽기 중(인물) - 인물 관계도 그리기

‘수상한 화장실’에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. 인물간의 관계가 복잡한 이야기의 경우 인물 관계도를 그리며 이야기를 읽어 가면 이야기가 훨씬 잘 이해됩니다. (예시)를 참고하여 ‘수상한 화장실’ 인물 관계도를 그려봅시다(인물 그림은 그리지 않아도 됨).



<예시: 둘리-인물 관계도> (출처: 서울스토리)

(수상한 화장실) 인물 관계도

3. 읽기 중(사건) - '화장실의 저주'는 진짜?

'화장실의 저주' 소문이 학교 전체로 퍼져 나간 후, 수상하게도 전교 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나쁜 일을 겪게 됩니다. '화장실의 저주'가 진짜인지 독자들도 헷갈리게 됩니다. 회장 후보들에게 닥친 안 좋은 일들은 무엇인지 찾아 적어 봅시다.

- 1)
- 2)

4. 읽기 중(사건) - 소문의 진실과 거짓은?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

송진이는 '영호가 전교 회장이 되기 위해서 화장실 소문을 냈다'라는 기사를 신문에 실으려고 했습니다. 실제로 신문에 실리지 못한 이 기사는 결국 가짜 뉴스임이 밝혀졌습니다. 방송부 기자인 송진이가 취재 과정에서 잘못된 일은 무엇인가요?

-
-

5. 읽기 중(배경) - 우리 학교 화장실 괴담은?

어느 학교든 학교 화장실에는 한두 가지의 괴담이 있기 마련입니다. 꼭 화장실이 아니더라도, 내가 알고 있는 우리 학교(또는 다른 학교) 괴담이 있다면 적어봅시다. 이 괴담이 진짜일지 각자 판단해 봅시다.

6. 읽기 후 - 소감 나누기

여러 사람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사슴을 말이라고 믿기도 합니다. 잘못된 소문이 퍼져나가면 누구나 영호처럼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. 내가 접한 소식, 내가 본 (유튜브) 영상이나 뉴스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항상 올바르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를 바라며 '수상한 화장실' 소감을 나누어 봅시다.

<수상한 화장실. 박현숙 글> (정답)



전교 회장 선거를 앞두고 “전교 회장이 되는 사람은 큰일 난다. 이 말을 소문내는 사람도 큰일을 피하지 못한다.”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. 그러다 화장실 귀신의 저주가 시작되었다는 태풍급 소문까지!

<예스24 책소개>

1. 읽기 전(책 내용 예상하기)

‘수상한 화장실’은 제목 그대로 화장실에서부터 퍼져 나간 소문을 소재로 삼은 이야기입니다. 제목도 그렇고 표지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표정도 그렇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책장을 빨리 넘기고 싶어지게 만듭니다. 책 제목과 표지를 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예상해봅시다.

2. 읽기 중(인물) - 인물 관계도 그리기

‘수상한 화장실’에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. 인물간의 관계가 복잡한 이야기의 경우 인물 관계도를 그리며 이야기를 읽어 가면 이야기가 훨씬 잘 이해됩니다. (예시)를 참고하여 ‘수상한 화장실’ 인물 관계도를 그려봅시다(인물 그림은 그리지 않아도 됨).



<예시: 둘리-인물 관계도> (출처: 서울스토리)



(수상한 화장실) 인물 관계도

3. 읽기 중(사건) - '화장실의 저주'는 진짜?

'화장실의 저주' 소문이 학교 전체로 퍼져 나간 후, 수상하게도 전교 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나쁜 일을 겪게 됩니다. '화장실의 저주'가 진짜인지 독자들도 헷갈리게 됩니다. 회장 후보들에게 닥친 안 좋은 일들은 무엇인지 찾아 적어 봅시다.

- 1) 동호, 희찬, 재성이가 축구를 하다가 머리를 부딪쳐 다침
- 2) 여진이가 라면을 먹다가 미끄러지면서 라면 그릇이 허공에서 멈췄다가 얼굴로 떨어짐

4. 읽기 중(사건) - 소문의 진실과 거짓은?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

송진이는 '영호가 전교 회장이 되기 위해서 화장실 소문을 냈다'라는 기사를 신문에 실으려고 했습니다. 실제로 신문에 실리지 못한 이 기사는 결국 가짜 뉴스임이 밝혀졌습니다. 방송부 기자인 송진이가 취재 과정에서 잘못된 일은 무엇인가요?

- 화장실에서 들은 이야기를 진짜로 믿고 기사를 내려고 함
- 화장실에서 들은 이야기가 진짜인지 당사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기사를 내려고 함

5. 읽기 중(배경) - 우리 학교 화장실 괴담은?

어느 학교든 학교 화장실에는 한두 가지의 괴담이 있기 마련입니다. 꼭 화장실이 아니더라도, 내가 알고 있는 우리 학교(또는 다른 학교) 괴담이 있다면 적어봅시다. 이 괴담이 진짜일지 각자 판단해 봅시다.

6. 읽기 후 - 소감 나누기

여러 사람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사슴을 말이라고 믿기도 합니다. 잘못된 소문이 퍼져나가면 누구나 영호처럼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. 내가 접한 소식, 내가 본 (유튜브) 영상이나 뉴스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항상 올바르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를 바라며 '수상한 화장실' 소감을 나누어 봅시다.

한줄평) 빠르게 퍼져나가는 소문의 무서움과 실타래처럼 엉킨 거짓이 하나씩 드러나는 이야기의 즐거움
지태민(서울신용산초등학교)